

# 15세기 관형구조의 의미론적 선택 제약에 대한 고찰

강보유(복단대학교)

## 1. 머리말

통사구조에서의 단어들의 상호 관계는 의미, 문법적인 선택 제약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단어들의 상호 결합은 품사, 형태론적, 통사론적 구조의 선택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구조의 선택 제약을 받게 된다. 통사론적으로 그 결합관계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의미론적 선택 제약구조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단어들은 서로 결합될 수 없다. 의미적인 《궁합》이 맞아야 서로 통합될 수 있다. 단어들은 그 의미자질에 따라 의미론적으로 상호 선택 제약을 받으면서 통사론적으로 공기관계(共起關係)를 형성한다. 관형구조에서의 의미론적 선택 제약이란 바로 한정어와 중심어의 의미자질에 따른 상호 선택과 상호 제약을 말하는 데, 한정어와 중심어의 의미자질에 의해 관형구조에서의 상호 선택 공간과 상호 제약 조건이 결정된다. 즉 한정어와 중심어의 의미자질이 해당 관형구조의 의미론적인 선택 제약을 결정하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어 의미용적(의미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사구조에서의 상호 선택 공간과 상호 제약 조건은 변화되기 마련이다. 현대 언어의식으로 15세기 관형구조를 조명해 볼 때 겉모습은 같다 하더라도 엄밀히 따져보면 의미론적인 선택 제약에서 오늘날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15세기 한국어 관형구조를 [A+N]형 구조, [V+N]형 구조, [N+N]형 구조로 나누어 관형구조에서의 의미론적인 선택 공간과 제약 조건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2. [A+N]형 관형구조에서의 의미 선택 제약

먼저 한정어로 쓰인 형용사 ‘굵다’가 중심어를 한정해주는 관형구조에서의 의미 선택 제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형용사 ‘굵다’가 한정어로 쓰일 때 그와 공기관계에 있는 중심어(피한정명사)는 [+무정/+구체], [+추상], [+인간] 그리고 [+동물]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들이다.

- (1) ㄱ. 杵는 방합피니 굵근 막다히 ㄱ튼거시라 (석보상절 6:31)
- ㄴ. 숲가락 슴이에서 굵근 보빅엿 곶비 오더니 (월인석보 7:38)
- ㄷ. 業果엿 굵근 비즌 업고 定果엿 그논 비치 잇느니 (월인석보 1:36)

예문 (1)은 ‘굵다’가 무정명사 즉 구체명사와 결합하여 관형구조를 이룬 것인데,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粗]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중심어를 선택 제약한다. 예문 (1.ㄷ)에서는 ‘굵다’

가 ‘ㄴ늘다(細)’와 반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2) ㄱ. 闊은 闊근 지비라 (월인석보7:64)  
ㄴ. 大闊은 큰 지비니 님금 겨신 지비라 (월인석보 1:10)

- (3) ㄱ. 闊근 江이 ㄴ고 흐르디 아니 흐며 (월인석보 2:32)  
ㄴ. 두 나랏 스시에 闊 ㄴ르미 이쇼되 (월인석보 8:99)

예문 (2, 3)에서는 ‘꺾다’가 부정명사와 공기관계에 있으면서 [+大]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크다》와 동의관계에 놓인다.

- (4) ㄱ. 闊근 地獄이 여들비니 (월인석보 1:28)  
ㄴ. 혀근 地獄이 그지업스니 (월인석보 1:29)

- (5) 效근 풍류와 闊근 풍류들 (細樂大樂)(박통사언해초간 상 71)

예문 (4, 5)은 ‘꺾다’가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관형구조를 이룬 것이데, [+大]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혀다/혹다’와는 반의관계에 놓인다.

- (6) ㄱ. 부텃 闊근 弟子들히 舍利를 어더 (석보상절 24:37)  
ㄴ. 녀느 闊근 比丘ㅣ ㅎ마 오시리니(諸大比丘尋次當來) (석보상절 24:22)

- (7) ㄱ. 闊근 比丘衆 一萬二千 사툼 ㅎ되 잇더시니 (석보상절 13:1)  
ㄴ. 闊 比丘衆 萬二千人과 ㅎ되 잇더시니 (법화경언해 1:22)

- (8) ㄱ. 摩訶薩은 闊근 菩薩이시다 ㅎ논 마리라 (석보상절 9:1)  
ㄴ. 菩薩摩訶薩은 菩薩人 中에 闊 菩薩이라 (월인석보 7:62)

- (9) 나랏 사르미 闊근니여 혀근니여 우디 아니ㅎ리 업더라 (월인석보 10:12)

이상의 예문들은 ‘꺾다’가 [+大]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인간명사들과 공기하면서 관형구조를 이룬 것이데, 예문 (6, 7, 8)에서는 ‘크다’와 동의관계에 놓이고 예문 (9)에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와 결합하여 관형구조를 이루고 ‘혀다’와는 반의관계에 놓였다.

- (10) ㄱ. 이러툃ㅎ 闊근 龍王들히 上首ㅣ ㄴ외오 (월인석보 10:44)  
ㄴ. 되아비는 闊근 도툃 갓 ㅎ외 (羌父豪猪靴) (두시언해초간 22:38)

- (11) ㄱ. 闊근 고기논 ㅎ러 다 머리를 드리웻느니(大魚傷損皆垂頭) (두시언해초간 16:63)  
ㄴ. 效근 고기 ㅂ서너문 可히 紀錄ㅎ디 ㅂㅎ리로소니(小魚脫漏不可紀) (두시언해초간 16:63)

- (12) 效근 즘칭과 闊근 즘칭도 이시며 (노걸대언해 상 43)

예문 (10, 11, 12)은 ‘꺾다’가 [+大]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동물명사와 공기하면서 관형구



(18) 般若는 빈 理를 니르샤 相 이쇼를 허르시니 (월인석보 8:103)

예문 (18)에서는 ‘뷔다’가 [+空]의 뜻으로 추상명사 ‘理’와 관형구조를 이루었는데, 이는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없고 자성(自性)이 없다는 불교의 ‘空理’에 대한 풀이로 해석된다.

15세기에 ‘뷔다’는 특징적으로 [+純]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아무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예문(19)을 통해 알 수 있다.

(19) 혼 가마에 빈 ㅁ를 글히더니 (월인석보 7:13)

‘뷔다’의 이런 [+純]의 의미자질은 17, 18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빈 밥’과 ‘된 밥’에서 방증된다.

(20) ㄱ. 혜여든 이맛감 빈 바비 므스거시 긴홀고 (노걸대언해 상 41)

ㄴ. 된 바블 간대로 머그라 (淡飯胡亂吃此)(노걸대언해 상 40)

15세기에 형용사 ‘덥다’는 [+曙], [+炎], [+溫]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무정명사와 추상명사를 선택 제약하면서 ‘춥다(冷)’와 반의관계에 있었다.

(21) ㄱ. ㅁ 처서의 더븐 블로 모물 스라 설벼 드위터디게 호고 (월인석보 1:29)

ㄴ. 더븐 쇠노호로 시울 티고 (월인석보 1:29)

ㄷ. 더븐 돛귀와 톱과로 바히느니라 (월인석보 1:29)

ㄹ. 더븐 물애 모매 븐는 ㅁ왜라 (석보상절 13:8)

ㅁ. 더븐 鐵輪을 놀여 보내야 (석보상절 6:46)

ㅂ. 樓 우희 더운 하늘해 어름과 눈괘 나는듯 하니 (두시언해초간 14:11)

(22) ㄱ. 더븐 煩惱를 여희의 홀 느지니 (월인석보 1:18)

ㄴ. 더븐 煩惱는 煩惱 | ㅁ ㅁ티 다라나는 거실씩 덥다 호느니라 (월인석보 1:18)

(23) ㄱ. 사름 브려 더븐 저즐 브스니 (석보상절 24:41)

ㄴ. 夫人이 두리여 도로 촌 저즐 브스니 (석보상절 24:42)

예문 (21)에서는 ‘덥다’가 무정명사를 선택 제약한 것인데, 예문 (21, ㄷ)의 ‘더운 하늘하’은 ‘炎天’을 말한다. 예문 (22)에서는 ‘덥다’가 추상명사 ‘번뇌’까지도 선택 제약할 수 있었다. 예문 (23)은 ‘덥다’와 ‘춥다’가 반의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15세기에는 형용사 ‘덥다’가 ‘뜨겁다’, ‘따뜻하다’, ‘따스하다’와 같은 동의어군들의 의미를 상위적으로 포섭했음을 알 수 있다.

형용사 ‘덥다’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당한 슬픔의 뜻을 나타내는 ‘서럽다’와 육체적으로 당한 슬픔의 뜻을 나타내는 ‘괴롭다’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에 추상명사에 대한 선택-제약에 있어서 주관성과 객관성 표현의 명사들이 모두 선택될 수 있었다.

(24) ㄱ. 아바님이 손 드르샤 부텃 발 ㅁ르치샤 설븐 ㅁ 업다 호시니 (월인천강지곡 263, 월인석보

10:2)

- ㄴ. 좁고 애완븐 쁘들 머거 갖가스로 사니노니 (석보상절 6:5)
- ㄷ. 여희는 설운 므스미 ㄱ ㄷ ㄹ ㅎ 애라(恨別滿江鄉) (두시언해초간 8:70)
- ㄹ. 설운 므스미 겨시면 곶 噴心 ㅎ야 (금강경언해 80)

- (25) ㄱ. 설븐 있 中에 더 離別 ㄱ ㄷ 니 업스니 (석보상절 6:6)
- ㄴ. 설븐 人生이 어뒸던 ㄱ ㄷ 니 이시리잇고 (석보상절 6:5)

‘좁다’는 또 ‘원통함’과 ‘억울함’의 의미자질도 갖고 있어서 ‘罪’를 선택 제약할 수 있었다.

- (26) 아비 설븐 罪로 가뒸렛거늘 (삼강행실도 23)

15세기에 ‘똥다’는 [+好], [+善]의 의미자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正]의 의미자질도 갖고 있어서 ‘사오납다’, ‘긋다’와 반의관계에 놓인다.

- (27) ㄱ. 도 ㅎ 일 지스면 도 ㅎ 몸 ㄷ외오  
사오나본 일 지스면 사오나본 몸 ㄷ외요미 (월인석보 1:37)
- ㄴ. 도 ㅎ 일란 내게 보내오 구 즌 일란 ㄴ ㄷ 기 게 주느니(好事歸己惡事施於人) (금강경언해 21)

- (28) ㄱ. ㄱ 장 도 ㅎ 신 功 德을 불어 니르샤 (석보상절 9:2)
- ㄴ. 도 ㅎ 法과 구 즌 法과를 내 行 ㅎ노라 (월인석보 7:43)
- ㄷ. 도 ㅎ 業이며 구 즌 業엿 果 報를 다 싱 각 ㅎ야 (석보상절 9:31)

예문 (27)에서의 ‘도ㅎ 일’, ‘도ㅎ 몸’은 각각 ‘착한 일’, ‘착한 몸’으로 쓰인 것이고 예문 (28)에서의 ‘도ㅎ신 功德’, ‘도ㅎ 法’, ‘도ㅎ 業은’ 또 ‘바른 공덕’, ‘바른 법’, ‘바른 업’으로 받아들여진다.

### 3. [V+N]형 관형구조에서의 의미 선택 제약

15세기에 동사 ‘여위다’는 ‘술히 지도 여위도 아니ㅎ니라 (월석1:26)’에서와 같이 [+瘦]의 의미자질 외에도 현대어와는 달리 ‘渴은 물 여위 썩라(능엄9:71)’와 같이 [+乾], [+枯]의 의미자질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못(池)’, ‘밥(飯)’을 선택 제약할 수 있었다.

- (30) ㄱ. 여 원 못 가온디 몸 커 그우닐 龍을 현 맛 벌에 비늘을 썩라노 (월인천강지곡 28)
- ㄴ. 藪 는 물 여 원 모시라 (법화경언해 4:119)
- ㄷ. 四 海 바닷 프리 여 위오(四海水竭) (석보상절 23:26)

- (31) ㄱ. 안 직 여 원 밥과 고 깃 국으로 (乾飯肉湯)(번역박통사 상 39)
- ㄴ. 안 직 乾 飯과 肉 湯으로 (박통사언해초간 상 35)

예문 (30)에서의 ‘여원 못’은 ‘마른 못’으로, 예문 (31)에서의 ‘여원 밥’은 ‘마른 밥’으로 받아들여진다.

15세기에 생리적인 [+産兒]의 의미자질을 가진 동사 ‘낳다’는 한자어 ‘生’의 영향으로 그

의미폭이 넓어서 인칭명사뿐 아니라 무정명사와도 관형구조를 이룰 수 있었다.

- (32) 가. 나혼 子息이 양지 端正하야 (석보상절 9:26)  
나. 鹿母夫人의 나혼 고졸 어디 버린다 (석보상절 11:32)
- (33) 가. 父母 나혼산 누니 三千界를 다 보리라 (석보상절 19:10)  
나. 父母 나혼산 淸淨호 肉眼으로 ..... 보며 (석보상절 19:13)  
다. 어미 나혼 누늘 키 여러(大開娘生眼) (금강경삼가해 3:59)
- (34) 가. 어미 나혼 보릿 藏을 쫄 只숨 업서(娘生寶藏無心用) (금강경삼가해 3:50)  
나. 어미 나혼 ㅁ외는 純하야 섯근 것 업스니(孃生袴子純而無雜) (금강경삼가해 2:61)

예문 (32)의 “낳다”는 ‘産兒’를 뜻하는데, 예문 (32, 나)은 불교적인 초자연적인 신비 색채가 짙다. 예문 (33)에서는 ‘낳다’가 신체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구체명사들을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예문(34)에서는 ‘낳다’가 [+製作]의 의미자질로 무정명사를 선택-제약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에 동사 ‘짓다’는 현대어에서와 마찬가지로 [+建築], [+作農], [+作文], [+犯罪]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亭舍’, ‘너름’, ‘글’, ‘죄’ 등 무정명사와 추상명사들을 선택-제약하고 있었음을 아래 예문 (35)을 통해 알 수 있다.

- (35) 가. 須達의 지순 亭舍마다 드르시며 (석보상절 6:38)  
나. 戌陶羅는 너름 짓는 사르미라 (월인석보 10:21)  
다. 御製는 님금 지스산 그리라 (훈민정음언해)  
르. 菩薩이 前生에 지순 罪로 이리 受苦하시니라 (월인석보 1:6)

그런데 ‘짓다’가 흔히 ‘죄’와 결합되어 ‘저지르다’라는 경멸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15세기에는 ‘짓다’가 [+所作], [+所得]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중성(中性)적인 의미로 쓰이면서 ‘罪’뿐 아니라 ‘福’까지도 선택 제약할 수 있었음을 아래 예문 (36)을 통해 알 수 있다.

- (36) 가. 제 지순 罪며 福을 다 썬 琰魔法王을 맞더든 (석보상절 9:30)  
나. 지순 罪며 福이며 헤여 공스허리니 (석보상절 9:30)

한정어뿐 아니라 중심어로 쓰인 명사의 의미폭도 현대보다 넓은 것이 있었다. 예컨대, ‘地’는 짜히라 (월석서 18)’에서 보다시피 ‘짜ㅎ’의 원초적 의미는 ‘하늘ㅎ(天)’에 대응되는 ‘地’인데 15세기 관형구조에서는 중심어로 쓰이면서 ‘곳, 자리’의 뜻도 나타낸다.

- (37) 가. 獄은 사름 가도는 짜히라 (석보상절 9:8)  
나. 내 몸도 좃즈바 궤 짜힌가 문 궤 짜힌가 (월인석보 8:93)  
다. 싸흠 저기 갈해 헌 짜홀 旃檀香 브르면 (월인석보 1:26-27)  
르. 句는 말썬 그즌 짜히라 (월인석보 서 8)

현대어에서는 ‘땅’이 ‘곳, 지방’을 가리키더라도 ‘강원도 땅에는 감자가 많이 난다’에서처럼

[N+N]형 관형구조에서는 잘 쓰이지만 [V+N]형 관형구조에서는 제약적이라 할 수 있다.

#### 4. [N+N]형 관형구조에서의 의미 선택 제약

[N+N]형 관형구조는 기타 유형의 관형구조보다 상호 선택 공간이 넓고 상호 제약 조건이 적어서 통사적, 의미적 통합이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

(38) ㄱ. 마초아 민 나라해 도라오니(遇還本國) (석보상절 24:52)

ㄴ. 漸漸 든녀 민 나라흐 마초아 向히니 (월인석보 13:7)

ㄷ. 사르미 민 지블 몰라 (월인석보 21:117)

ㄹ. 質은 꾸뎀 업슨 민 열구리라 (금강경삼가해 2:61)

ㅁ. 민 스승이론 전초로 道理人 根源이 本來 空寂히야 마리 업슬시 (금강경삼가해 4:41)

예문 (38)에서는 ‘민’은 방위로서의 [+아래]로서가 아닌 [+본래]의 의미자질로 오늘날과 다르게 후행명사를 선택 제약하고 있다. ‘本是 미티라(월석서 14)’에서 보다시피 본전(本錢)으로서의 ‘민천→밀천’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39) ㄱ. 처서미 사르미 쌈 마슬 먹다가 (석보상절 9:19)

ㄴ. 쌈 거치 업거늘 쌈 슬히 나니 (월인석보 1:43)

ㄷ. 쌈 슬히 업거늘 쌈 기르미 나니 (월인석보 1:43)

(40) ㄱ. 翻譯이 업다 니르느니 뜻 마시 다오미 업슬씨 (월인석보 8:25)

ㄴ. 마슨 뜻 마시라(味는 意味也 | 라) (능엄경언해 6:56)

ㄷ. 法味는 法 마시라 (석보상절 9:9)

예문 (40, ㄱ.ㄴ)은 ‘意味’를 ‘뜻 맛’이라는 고유어 형태로 표현하려는 당시 언어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15세기 [N+N]형 관형구조에서 의미적 통합의 긴밀도(緊密度)가 높아질수록 의미융합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정어로 쓰인 선행명사의 의미소가 전이, 탈락되면서 의미폭이 넓어진다.

(41) ㄱ. 아기 아드리 양지 곱거늘 (석보상절 6:13)

ㄴ. 흔 사랑히는 아기 아드리 양지며 직죄 흔 그티니 (석보상절 6:15)

ㄷ. 舍衛國 須達이 婆羅門을 브려 아기 아들이 각시를 求히더니 (월인천강지곡 148)

ㄹ. 제 아기 아들 당가 드리고 (석보상절 6:13)

ㅁ. 王舍城 護彌 婆羅門을 알오 아기 쫘이 布施히게 히니 (월인천강지곡 148)

한정어로 쓰인 선행명사 ‘아기’는 ‘어린애’로서 의미소 [+年少]가 의미소 [+最小]로 전이되면서 중심어로 쓰인 후행명사와 함께 의미적 융합을 가져와 하나의 합성적 단어로 진화되었다 할 수 있다. ‘아기 아들’은 ‘막내아들(末子)’을, ‘아기 쫘’은 ‘막내딸(末女)’을 가리킨다.

(42) ㄱ. 淨飯王스 몬아드니몬 釋迦如來시고 아스 아드니몬 難陀 | 라 (월인석보 2:1)

ㄴ. 아스 아드르 阿難이라 (월인석보 2:1)

ㄷ. 嬖는 아스 며느리라 (내훈 3:40)

‘아스’는 ‘아스爲弟(훈해)’에서 보다시피 ‘아우’, ‘동생’을 가리키는데 예문 (42)에서는 [+小]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아들’, ‘며느리’를 선택 제약하고 있다.

(43) ㄱ. 妹는 아스 누의라 (월인석보 21:162)

ㄴ. 童女는 아히 겨지비라 (월인석보 2:28)

‘아스 누의’는 ‘누이동생’을 가리키고 ‘아히 겨집’은 ‘겨집아이’를 가리키는데 어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 5. 맺는말

본 논문에서는 15세기 관형구조의 의미론적 선택 제약에 대하여 고찰함에 있어서 주로 단어들의 의미용적이 큼으로 하여 상호 선택 제약이 자유로운 관계를 살펴보았다.

단어들의 의미용적(의미폭)이 크면 클수록 상호 선택 공간은 넓어지고 상호 제약 조건은 줄어들어 단어들의 결합은 자유로웠다. 한정어로 쓰인 선행어들의 의미용적이 오늘날보다 큰 관계로 중심어로 쓰인 후행명사에 대한 선택 공간은 넓었다. [有情/無情], [具象/抽象], [人稱/動物] 등 의미자질에 대한 제약 조건부가 상대적으로 적어 두루 결합될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15세기 관형구조의 의미론적 선택 제약이 현대어에 비해 자유로웠다는 것은 15세기 단어들의 의미가 세분화되지 않은 대신 의미용적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단어의 외피는 같아도 할지라도 오늘날과 다른 의미구조와 의미마당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빈 뿔 길<sup>ㅎ</sup>(空山道)’, ‘더운 하늘<sup>ㅎ</sup>(炎天)’, ‘나흔 ㄱ외(生袴子)’, ‘민 나라<sup>ㅎ</sup>(本國)’, ‘뜻 맛(意味)’ 등에서 보다시피 본 논문에서 다룬 대부분 예문들은 불교적 한문 텍스트에 대한 번역 차용으로서 한문 원문 번역에 충실한 점 배제할 수 없지만 고유어 형태로 표현하려는 15세기 당시의 언어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15세기 관형구조에서의 한정어와 중심어간의 의미론적인 선택 공간과 제약 조건에 대한 연구는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관형구조 차원을 넘어서 주술구조, 보충구조, 수식구조 등 전반 단어결합에서의 선택 제약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한, 인지언어 발달 과정의 한 단계를 보여주는 인지의미론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